

I. 서론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정보탐색이 용이해질수록 지식의 물리적 창고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 위기에서, 도서관을 ‘지식의 창고’에서 ‘학습의 공간’으로 역할 확장(米澤 誠 2008)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이 러닝코먼스이다. 러닝코먼스는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시작된 도서관 서비스모델이지만, 일본에서는 도서관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기학습과 평생교육을 위해 설비와 인적지원이 투입되어 학습공간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러닝코먼스는 ‘러닝’이라는 콘텐츠와 ‘코먼스’로서의 공유지의 개념이 결합된 것이다.

첫째, ‘러닝’이라는 콘텐츠기능이 강조되면서 도서관은 학습활동과 학습지원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의 흐름에서 주체적 학습이 강조되면서 자기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加藤信哉, 小山憲司 2012).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평생학습의 지속,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체적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로의 도서관의 학습콘텐츠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지역도서관은 평생학습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둘째, 코먼스로서의 도서관 역할강화이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Wikipedia 2015)에 의하면, 코먼스란 사적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활용되어지는 공유지(common land)라는 영국의 법적 용어에서 유래되어, 일상적으로 코먼스(communs)라고 불리고 있다. 즉 코먼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자연적 공유공간을 말한다. 도서관의 코먼스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주장은 Beagle(2006)의 정보코먼스로, 이는 물리적 공간(physical commons), 가상적 공간(virtual commons), 문화적 공간(cultural commons)이 모이는 곳이다. 러닝코먼스는 정보코먼스를 학습활동 중심의 실천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임형연 2013). 도서관 러닝코먼스란 학습의 목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와서 머무르는 공간의 구축이다. 이처럼 학습이라는 콘텐츠와 코먼스라는 공유공간을 결합한 러닝코먼스로서 도서관은 주체적 학습의 지원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와서 머무르고 학습하는 공유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러닝코먼스는 정보코먼스의 기반에서 도서관의 사명달성을 위한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러닝코먼스의 핵심 콘텐츠의 하나가 독서교육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독서지도사 양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도서관에 있어서 러닝코먼스화를 위한 독서활동 진작의 한 사례로서 독서지도 인력 양성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례조사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강좌, 일본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강좌, 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독서지도사 양성 강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일본의 도서관 방문 및 인터뷰과정에서 수집한 사례의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각 제도의 홈페이지 정보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공공 및 학교도서관의 사명인 학습이 활성화되어 러닝코먼스가 이루어지는 전제조건으로 독서의 활성화를 들고, 이러한 독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도서관 관련기관의 노력과 협력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도서관 독서지도 인력은 러닝코먼스의 핵심요소로서, 이를 통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서지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일본 도서관 기능의 새로운 전개

1. 일본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

일본에서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웹기반 서비스로 위기감을 인식한 도서관에 의해 특히 강조된다. 이러한 도서관의 내부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도서관의 이용자들에 대한 외부적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8월 일본 중앙교육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 평생학습의 지속,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대학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이 대학교육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加藤信哉, 小山憲司 2012)). 이러한 일본의 교육환경과 맞물리면서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倉吉(Kurayoshi) 시립도서관은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생활과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업과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多摩(Tama)시립도서관은 ‘사람만들기, 공동체만들기’의 일환으로 단지 지식을 습득하거나 암기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러닝코먼스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야기회를 실시하고, 지역의 동물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일본의 도서관과 독서지도

일본의 독서지도는 ‘책읽기지도’, ‘도서와 도서관 이용지도’, ‘생활 속에서의 독서지도’,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왔다(中村 百穂子 2008). 즉 ‘생활’과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3호)

‘독서’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래에 와서 독서가 교육과 연결되면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독서가 중시되었고 도서관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사서교사(司書敎諭)의 역할은 각 과목의 학습내용을 파악하고 학습을 보조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지워졌다. 직접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답에 이르는 수단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즉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의 역할에서 독서와 교육을 결부하여 학생의 학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학습에서 지식, 이해력을 육성하기 위해 ‘독서지도’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森 美紀子 2006).

2001년 제정된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 154호)에 기초하여 국회에 보고된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 환경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환경 만들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 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사회전체의 역할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독서의 범위를 넓혀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지역, 학교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1차 계획은 200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차 계획은 2008년부터 시작하고, 2013년부터 3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독서에 대한 가정, 지역, 국가, 학교, 도서관 등 사회 전체적 역할이 추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 도서관과 지역 민간단체 및 민간 봉사자들의 독서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어린이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 감상문대회, 가정에서 책임어주기 운동, 포럼개최, 독서지도자 양성, 서평대회 개최 등 읽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언어력, 표현력 등을 키우는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 관련자료(日本文部科学省 2015)에 따르면 2003년 10%의 책정상황에서 2011년 65%의 책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OECD의 학습도달도 조사에서 독해력부분이 15위이던 것이 2009년 8위로 올랐다고 보고되고 있다.

3. 러닝코먼스의 핵심기능으로서 독서교육 서비스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로의 이행에서 핵심 콘텐츠의 하나가 독서교육 서비스이다. 러닝코먼스란 전통적인 자료보관과 대출 중심의 도서관 기능에 대비해서 도서관의 학습공유지역활이 강조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中沢正江 등(2013)은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기능의 신기능으로 러닝코먼스를 강조하고 있다. ‘러닝코먼스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 학습의 공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러닝코먼스로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러닝코먼스의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현상 보고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토론 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小西 和夫 2011 ; 小坂 守 2009). 정재용(2008)은 학교도서관의 정보코먼스 개념을 도입한 공간 활용을 통하여 학교 내 커뮤니티와 수업중심의 기능을 강조했다.

러닝코먼스의 개념은 정보코먼스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Beagle(2006)에서 학습공간을 중심으로 확장된 것이다. Bennett(2008)는 도서관의 사명인 학습을 실천하는 공유지 개념으로서 러닝코먼스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Heitsch 등(2011)에 의하면, 러닝코먼스는 초기의 정보코먼스가 학습기능 중심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지식창조(creation of knowledge)와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둔 개념이다. 즉 정보코먼스는 물리적 코먼스, 정보적 코먼스, 문화적 코먼스로 구성되며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구성요소가 갖추어진 집합체로 보았다면 러닝코먼스는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진 다음에 실제로 도서관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정보적 공간, 문화적 공간을 갖추어놓은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서 실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강조되고, 도서관 외부와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임형연 2014). 따라서 도서관의 인적자원의 역할도 증시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는 물리적 요소와 정보적 요소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막론하고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문화적 요소는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아동을 위해서는 독서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해서는 독서회, 성인을 위해서는 비즈니스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건강 및 생활프로그램 등이 도서관에서 서비스되어지고 실행될 때 러닝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과 문화기관의 핵심역할을 해왔고, 지역주민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Byrne 2005)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독서의 자료가 디지털 자료이던 인쇄자료이던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통하여 그들의 지적성장을 이루고 문화적 공감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인 도서관 독서활동의 활성화는 도서관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이용자가 도서관에 와야 할 필요가 있고,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도서관은 존재할 것이고,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일본의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사례분석

1. 일본 독서지도사 양성의 개요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3호)

일본의 독서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독서는 구조화된 틀에서 교육해야하는 것보다 개인의 영역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國本, 宮田, 小泉 2009). 따라서 독서에 지도자라는 명칭보다 어드바이저, 코치, 상담사, 코디네이터 등의 명칭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독서가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독서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정책적으로 꾀하고 있다.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지도사 양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독서지도사의 역할을 하는 인력 양성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협회,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독서지도사 양성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들 기관들의 독서지도사 양성과정과 배경, 독서지도사의 활동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기관들의 사례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독서를 장려하고 도와주는 지원자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독서는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지도사를 양성할 때, 지도사는 독서지도에서 교사와 같은 전문가이기보다는 개인이 독서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와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독서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영역을 넓히고 자기 표현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라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¹⁾

가. 독서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의 배경

시즈오카현에서는 ‘독서 시즈오카’정책에 기초하여 ‘시즈오카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 양성 과정을 주관한다. 다음은 시즈오카현에서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²⁾.

사례 1: A초등학교 도서관

책읽기 프로그램: 독서교육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있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없어 책 읽어주기 시간에 어린이들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1) 본 사례연구의 기초자료는 시즈오카현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한 것이다(<http://www.pref.shizuoka.jp/kyouiku>) [cited 2015.8.5]
 2) 각 학교 독서지도의 문제점과 독서어드바이저양성의 배경의 자료는 <http://www.pref.shizuoka.jp/kyouiku/kk-080/dokusyo/pref/file/21adv.html>참조[cited 2015.8.5]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모른다.

사서교사는 바빠서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사례 2: B초등학교 도서관

책을 읽어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싶지만 적절한 사람이 오지 않아 책 읽기 지도가 곤란하다.

주변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독서지도와 교육역량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

사례 3: C중학교 도서관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서서교사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를 위해 시즈오카현에서는 ‘어린이 독서어드바이저(静岡県子ども読書アドバイザー)’ 제도를 통해 양성된 독서지도사가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 독서어드바이저 양성 강좌 내용

이 제도는 독서지도 자원봉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학교와 자원봉사자의 조정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즈오카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시정촌(市町村)의 학교 및 학교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경험, 기술이 뛰어나고 리더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명 정도를 추천받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독서교육 지도자로서 기초이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의 기초이론, 지도방법, 코디네이터방법 등을 공부하게 된다. 이들이 수강하는 구체적인 강좌내용으로는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이해, 교육과정과 독서지도, 학교와 연계한 독서지도, 자원봉사자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 독서지도 자원봉사자의 역할, 어린이 책의 역사 및 출판, 책읽어주기 자료 선택과 실전,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6일간에 걸쳐 34시간 이루어지며 이수 후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 자격을 인정한다. 수료 후 이들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 서비스의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시즈오카현에서 독서어드바이저 양성을 위해 2014년 현재 개설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3호)

<표 1>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 교육 2014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일정	주제	강의내용 및 활동	과제
제 1일	독서시즈오카를 목표로	- 시즈오카어린이 독서활동추진 계획에 대하여 - 시즈오카어린이 독서어드바이저의 개요 - 어린이 독서어드바이저의 역할이란 - 오늘날, 어린이 책이 되기까지 - 그룹활동: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활동(자기소개 등)	어린이 독서 활동에 대한 생각
제 2일	학교와 자원봉사자 함께 만드는 도서관	-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교육과 학교도서관 - 그룹활동: 각각의 흥미를 살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하자. 사서교사, 학교사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연계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것
제 3일	독서어드바이저 활동과 실제	- 그룹활동: 우리 마을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 책임어주기에 적당한 그림책 선택 - 책임어주기 실천보고: 후지노미야시의 독서어드바이저의 활동	어린이 독서(책임어주기)를 위한 선서(책 선택)에 대한 유의점

다. 독서어드바이저의 활동

이렇게 양성된 독서어드바이저를 각 학교 도서관에 활동하게 하였다. 기존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 교육위원회와 도서관은 현내의 자원봉사자 자질향상과 학교와 자원봉사자간 조정을 시도하였다. 독서어드바이저의 주요 활동은

첫째,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책임어주기 실제를 견학하고, 각자원봉사자의 기술향상에 대한 조언을 한다.

둘째, 학교 측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조정 협력을 꾀한다.

셋째, 책임어주기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학교와 지역의 책임어주기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준다.

넷째, 학교의 보호자들이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때 양성강좌를 열어 이들을 독서어드바이저 인재로 양성한다.

다섯째,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의 정비, 활성화를 꾀한다.

여섯째, 학교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 조언 한다

그 결과 사례분석 학교 독서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A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월 1회)자원봉사자의 책임어주기의 실제를 견학하고, 독서교육 각 자원봉사자에 대해 기술향상을 위한 조언을 실시한다.

학교측과 자원봉사자가 협력하여 상호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이해를 도모한다.

B초등학교 학교도서관

- #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학교와, 지역의 책임어주기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한다.
- # 적당한 인재가 없는 경우에는 B초등학교의 보호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양성 강좌를 개최한다.

C중학교 학교도서관

- # 사서교사와 상담하여 학교도서관의 정비, 활성화에 대해서 조언한다.
- # 자원봉사자의 도입에 대해 조언한다.

라. 효과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활동

시즈오카현에서 독서시즈오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도 하고 있다.

첫째, 시즈오카현은 독서활동 추진회의를 실시한다. 독서활동 추진회의는 도서관, 학교, 민간, 행정 등의 각 대표자 및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시즈오카현 어린이와 독서활동 추진계획의 진행을 평가하고, 독서추진 시책 등을 검토한다.

둘째, 시즈오카현 독서가이드북 ‘책과 어린이들’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아동, 학생의 독서활동 보급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이용’, ‘도서의 분류’, ‘책을 즐기는 활동’, ‘추천도서’ 등을 게재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다.

셋째, ‘독서시즈오카’ 만들기 우수 실천 교육장을 표창한다. ‘시즈오카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독서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특색 있고 우수한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한다.

마. 독서어드바이저 양성 기대 효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독서어드바이저를 양성하여 투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

둘째, 독서지도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셋째, 책임어주기 서비스제공자로서 독서지도사의 전문적 역할이 제고된다.

넷째, 자원봉사자들의 횡적 연대가 강화되어 프로그램투입과 활용이 용이해진다.

다섯째, 독서지도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아이들이 책에 대해 더욱 친근함을 느끼도록 한다.

여섯째, 도서관의 이용도 저하라는 과제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고,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진다.

3. 일본 도서관협회의 아동도서관원³⁾

가. 아동도서관원 제도의 배경

아동도서관원(児童図書館員)은 일본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여,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의 현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 조연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본 도서관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아동도서관원 제도는 특히 어린이들의 독서를 확산시키고 어린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도서관원 제도 운영은 일본 도서관협회의 아동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위원회는 공립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공익재단인 협회의 아동청소년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공립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아동도서관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양성강좌의 기획, 운영하는 것이며, 어린이서비스와 관련된 조사, 연구,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의 연결, 조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으로는 도서관인, 대학교수, 대학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일본 도서관협회에 의한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 대상자 선정

아동도서관원 양성을 위해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응모를 받아 아동도서관원을 양성하고 있다.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의 수강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2) 공공도서관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 담당을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수강 가능하다.

<2014년 수강자 제출서류>

1) 과제A : ‘아동도서관원 양성 전문강좌의 수강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본문 1300자-1400자로 (A4용지 1페이지 이내) 정리할 것.

2) 과제B : 다음에 들고 있는 과제도서를 읽고, 소속되어있는 도서관의 과제와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1300자-1400로 (A4용지 1페이지 이내) 정리할 것

과제도서: 『아동도서관으로의 길』 友野玲子 역 Harriet G. Long 저

제출 : 아동도서관원 양성 전문강좌 담당자 앞으로 보낼 것

2014년도 수강자 결정은 아동청소년위원회의 서류심사에 의해 결정하며 통지는 5월 중순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수강자 결정이 나면 필독도서와 각 과목의 과제를 통지한다.

3) 일본도서관협회의 아동도서관원제도의 자료는 일본도서관협회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정리한 것이다. <http://www.jla.or.jp/committees/jidou/tabid/275/Default.aspx>[cited 2015.8.5]

이러한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 수강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되어있는 형태 및 직위, 사서자격 취득방법 및 날짜, 도서관원으로서 경력을 소정의 이력서에 기재하고, 그 중에서 어린이서비스 담당 경력과 기간을 명기하여 수강 이유와 과제도서를 읽고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 주요 교육과정

교육은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총 90시간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으로는 ‘아동도서관원의 업무, 아동문학, 스토리텔링, 참고봉사, 북토크, 아동도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아동도서관원은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관련강좌의 모든 일정을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전국공공도서관 협의회가 수여하는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2014년도 제 34회 강좌 실시 일정 및 강좌내용을 보면 <표 2>와 같다. 장소는 주로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이루어지며 2014년도 교육일정은 전기에 2014년 6월 23日(월)부터 28日(토)까지 6일간 실시되며, 후기에 2014년 9월 29日(월)부터 10월 8日(수)까지 9일간 진행된다. 정원은 20명 정도이며 수강료는 60,000엔이다.

<표 2> 아동도서관원 2014년 강좌일정 및 주요내용

전/후기	날짜	강좌내용
전기	6월23일	개강식
	24일	어린이봉사의 운영, 연간계획
	25일	도서관의 매력, 북토크의 실습
	26일	아동도서관원의 업무, 이야기하기 실습
	27일	아동도서의 편집, 출판, 미디어와 어린이의 발달
	28일	어린이봉사의 실제(1) 유유아서비스
후기	9월29일	아동자료(1) 그림책
	30일	아동자료(2) 외국의 아동문학
	10월1일	아동자료(3) 일본의 아동문학
	2일	어린이봉사의 실제(2) 스토리텔링
	3일	어린이봉사의 실제(3) 참고봉사
	5일	어린이봉사의 실제(4) 북토크
	6일	아동자료(4) 과학책, 어린이봉사의 실제(5) 과학놀이
	7일	어린이봉사의 실제(6) 선서, 장서구성
8일	어린이봉사의 실제(7) 도서관이용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 연수의 자기평가와 정리	

4. 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의 독서회코디네이터⁴⁾

가. 독서회코디네이터 제도의 배경

독서회코디네이터(読書会コーディネータ)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독서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독서회코디네이터 제도는 공익재단법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존의 독서에 대한 생각은 독서란 개인이 읽고 이해하고 감동을 얻는 등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같이 읽고 서로 감상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심오한 독서가 가능하고 사고와 독서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독서생활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독서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한 독서회를 운영하기 위한 독서회를 운영하는 지식 등을 익힌 독서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서회코디네이터 강습회는 이론과 실습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을 익힌 독서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강습회를 확장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독서회코디네이터의 양성 교육과정

주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학교사서⁵⁾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강좌는 1회성 교육으로 실시되며, 독서지도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독서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케 한다. 각 교육마다 30명씩 모집하며 수강료는 각 회 1000엔 이다. 일본에서의 사서교사는 교사면허를 가지고 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일정의 사서교사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학교의 도서관의 업무를 겸해서 수행할 때 사서교사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학교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사서는 제도상 요구되어지는 자격이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자격을 정하고 있다. 교육은 1일간 오전 오후로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독서지도법, 독서회운영, 문학교육, 학교도서관경영’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14년 실시된 독서회코디네이터 강습회 일정 및 내용을 보면 <표 3>과 같다.

4) 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의 독서회코디네이터제도의 자료는 일본학교도서관협의회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정리한 것이다.<http://www.j-sla.or.jp/seminar/dokusyokaicoordinator.html> [cited 2015.8.5]
 5)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학교도서관자료 참조 http://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meeting/08092920/1282905.htm [cited 2015.8.5]

〈표 3〉 2014년도 강습회 일정 및 내용

일시	장소	강사	내용
제1회 6월21일	기후현 오가키시(岐阜県大垣市) 오가키 시 정보 공방(大垣市情報工房)	니가타 대학 교육학 교수(독서지도법, 독서회 등 지도)	
제2회 7월5일	카나가와현 후지사외시(神奈川県藤沢市) 쓰지도 시민 도서관(辻堂市民図書館)	히로시마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교수(문학교육, 독서교육, 국어교육학전공, 독서회, 리터러시서클, 어린이 독서)	
제3회 9월27일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青森県八戸市) 하치노헤 포털 뮤지엄하치(八戸ポータルミュージアムはっち)	니가타 대학 교육 교수(독서지도법, 독서회, 리터러시서클 등 지도)	오전: 독서회의 이론(독서회의 의의, 독서재료의 선택, 독서회의 운영 등) 오후: 실습(실습형식으로 실제로 독서회를 체험 운영한다)
제4회 10월18일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鹿児島県鹿児島市) 가고시마현립도서관	야마구치 현립 아사 고등 학교 사서 교사(성인과 고교 및 지역 독서, 독서회 지도, 사서교사로서 학교도서관 경영)	
제5회 12월6일	나라현 나라시(奈良県奈良市) 나라시립중앙도서관	히로시마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교수(문학교육, 독서교육, 국어교육학전공, 독서회, 리터러시서클, 어린이 독서)	

다.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

본의 학교도서관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학급 수 12학급이 넘으면 반드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사로 채용되는 사람이 학교 내에서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학교도서관의 자료선택, 수집, 제공, 어린이 독서활동에 대한 지도, 학교도서관의 운영, 활용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사서는 교사는 아니면서, 사무직원으로서 학교도서관에 채용되는 사람이다. 자격 제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자격을 정하기 때문에 전문영역의 지식 및 기술의 편차가 심하다.

사서교사가 되는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일본 학교도서관법 제5조2항에 의거한 사서교사 강습을 수료한 사람이 사서교사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하여 62학점이상 습득한 사람이 사서교사 강습을 들을 수 있다. 강습에서 사서교사 교과목 5과목 10학점을 습득하면 사서교사 자격이 수여된다. 사서교사 자격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갱신해서 연장이 되어야 사서교사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IV. 일본 독서지도사 양성의 시사점

일본의 독서지도사 양성 사례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면서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선 일본 독서지도사 양성의 배경이 되는 일본 도서관 독서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독서의 현상으로는 탈 활자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어린이들은 독서에 흥미로워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의 독서지도 자원봉사자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린이들을 책과 친근하도록 교육시키는 역량이 부족했다.

셋째, 기존의 독서지도 자원봉사자들은 독서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이 없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지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도서관과 사서들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존의 사서와 사서교사들은 업무가 많고 바쁘기 때문에 독서지도에 관심을 쏟기 어렵다.

둘째, 도서관내 독서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당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어렵다.

셋째, 책임어주기 자원봉사자가 일부 있지만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넷째,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독서지도사를 양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일본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를 진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첫째, 도서관 독서교육 서비스에 독서지도사를 투입함으로써 기존 사서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사서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 도서관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독서지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독서지도사 양성 강화의 결과 독서지도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

셋째, 독서지도사들은 책임어주기 서비스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활동영역이 확보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연대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는 자원봉사자간 횡적연계가 형성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협력에 의해 도서관 프로그램이 더 정비되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 어린이 독서환경이 개선되게 되었다.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아이들이 책에 대해 더욱 친근함을 느끼도록 하여, 기존의 도서관 독서교육에서 어린이들이 집중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의 이용도 저하문제를 개선하고 도서관의 러닝코먼스 콘텐츠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 충실해질수록 도서관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고, 도서관의 교육 콘텐츠가 충실해지고 활성화된다. 그 결과 도서관은 사회

속에서 러닝코먼스의 핵심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의 과정에서 독서교육 서비스 위한 일본의 독서지도사 양성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도서관 기능의 새로운 전개 중 하나가 러닝코먼스화이고 이를 통해 도서관은 사회를 위한 학습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전통적인 자료제공 역할을 넘어 학습 콘텐츠를 통한 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서지도사 양성은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콘텐츠의 분류, 보관에 초점을 두던 전통적 도서관 기능은 점차 콘텐츠의 활용과 코먼스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에서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일본 교육현상에서 탈 활자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어린이들은 독서에 흥미로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지도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은 교육과 독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도서관의 사서와 사서교사들은 기존 업무에 바쁘고 독서교육 서비스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을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독서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려웠다.

둘째,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들이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지도사를 양성함으로써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개선된 독서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 학습이 가능한 공간인 러닝코먼스로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러닝코먼스로서 도서관은 학습활동과 학습지원의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독서지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일본 도서관은 독서지도라는 사회적 필요를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협력하여 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함으로써 도서관은 전통적 의미의 자료보관의 역할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기능의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다. 도서관이 독서교육 서비스라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러닝코먼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다만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일본 독서지도 관련 인력의 양성과 그 시사점

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독서지도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독서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독서지도사의 자격제도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서관 독서지도사가 교사와 같은 독서교육의 전문가여야 하는가, 혹은 개인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자, 지원자, 조언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전자처럼 독서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독서지도사 자격제도 역시 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서지도사가 교사와 같은 전문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교과과정과 교육을 거쳐서 양성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독서는 구조화된 틀에서 교육해야 하는 것이기 보다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하고 생각과 의견을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일본의 독서지도사 즉 독서어드바이저나 독서코디네이터 등의 양성 방향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교육 서비스의 인력은 독서를 격려하고 개인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자기표현과 다양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사례처럼 독서어드바이저, 아동도서관원, 독서회코디네이터는 독서교육의 전문가로서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독서를 격려하는 인력으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보스턴지역 공공도서관의 아동 독서교육 서비스에서 사서와 독서지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임형연 2004)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서관련 지도자 양성 사례는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활동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독서교육 서비스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도서관은 이러한 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독서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도서관 러닝코먼스를 구축해가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도서관들도 도서관에서의 러닝이라는 콘텐츠를 더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코먼스라는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와야 할 이유, 머물러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임형연. 2004.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미국 보스턴주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393-414.
- 임형연. 2013. 러닝코먼스로서 일본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2013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동계학술발표대회』, 51-64.
- 임형연. 2014. 도서관 정보코먼스에서 러닝코먼스로의 진화: 일본 공공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441-462.
- 정재영. 2008.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의 도입을 통한 학교도서관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67-289.
- Beagle, Donald, D., Bailey, Donald Russell and Tierney, Barbara. 2006. *The Information Commons Handbook*.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 Bennett, Scott. 2008. "The Information or the Learning Commons: Which Will We Hav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4(3): 183-185.
- Byrne, Alex. 2005. "The Library and the City : Evolving Concepts(Lifelong and Continuing Education in Libraries)." *Lifelong Education and Libraries*, 5: 1-9.
- Heitsch, Elizabeth, R. Holley. 2011. "The Information and Learning Commons: some Reflections."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culty Research Publications, Paper76*.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ome Page <<http://en.wikipedia.org/wiki/Commons>> [cited 2015. 8. 5].
- 足立 幸子. 2008. 地域と連携した読書指導の展開：見附市立見附小学校「読書活動」の記録. 『新大國語』, 32: 1-32.
- 加藤信哉·小山憲司共編訳. 2012. 『ラーニング・コモンズ：大学図書館の新しいかたち』. 勁草書房.
- 國本千裕, 宮田洋輔, 小泉公乃. 2009. 読書行為の次元：成人を対象としたフォーカス・グループ・インタビュー.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 55(4): 199-212.
- 小西 和夫. 2011. 市立図書館の改革：知識創造型図書館へ (発表1,シンポジウム「次代を切りひらく図書館の挑戦」, <特集>第52回(2010年度)研究大会). 『図書館界』, 63(2): 74-80.
- 小坪 守. 2009. 情報リテラシーとラーニング・コモンズ：日米大学図書館における学習支援. 『情報の科学と技術』, 59(7): 328-333.
- 中沢 正江 et al. 2013. 主体的に周囲から学び`学び続ける活力を得られる学習場：『ラーニングコモンズ』の構築に向けたヒアリング調査報告. 『高等教育フォーラム』, 3: 65-80.
- 中村 百合子. 2008. 滑川道夫の読書指導論の形成：戦前から戦後へ.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 54(3): 204-221.
- 森 美紀子. 2006. 図書館と「読書指導」. 『国際文化研究紀要』, 13: 1-25.

- 山内 祐平 et al. 2010. 『学びの空間が大学を変える』. ボイックス.
- 米澤 誠. 2008. ラーニング・コモنزの本質—ICT時代における情報リテラシー/オープン教育を実現する基盤施設としての図書館. 『屋大学附属図書館研究年報』, (7): 35–45.
- 子ども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関連資料<http://www.mext.go.jp/b_menu/houdou/25/05/_icsFiles/afieldfile/2013/05/17/1335078_02_1.pdf> [cited 2015. 8. 5].
- 静岡県公式ホームページ<<http://www.pref.shizuoka.jp/kyouiku>> [cited 2015. 8. 5].
- 静岡県子ども読書アドバイザー養成講座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pref.shizuoka.jp/kyouiku/kk-080/dokusyo/pref/file/21adv.html>> [cited 2015. 8. 5].
- 日本図書館協会ホームページ <<http://www.jla.or.jp/committees/jidou/tabid/275/Default.aspx>> [cited 2015. 8. 5].
- 公益社団法人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j-sla.or.jp/seminar/dokusyoicaordinator.html>> [cited 2015. 8. 5].
- 日本文部科学省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meeting/08092920/1282905.htm> [cited 2015. 8. 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Jea-Young. 2008.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chool Library Space by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Comm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267–289.
- Lim, Hyung-yeon. 2004. "Educational Roles for Children on the Public Library: Observation Survey on the Public Libraries in Boston and its Vici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2): 393–414.
- Lim, Hyung-yeon. 2013. "Reading Program as Learning Commons in Japan Public Library." *Proceedings Jounar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64.
- Lim, Hyung-yeon. 2014. "Evolution of Public Library from Information Commons to Learning Commons : The Cases of Japan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441–462.